

## 四象體質診斷法 및 四象鍼 基礎理論

의학박사 李 明 馥

四象醫學은 동무 李濟馬 선생이 개발, 체계화시킨 순수 자주의학으로서 세계 의학사상 전무한 체질 의학입니다 그러나 이 불후의 체질의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한채 정체국면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뚜렷하게 劃定되어 있지 않은 체질구분의 難解點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해부학 교수인 本人이 위장병으로 40여년을 고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韓方醫藥의 권위자이신 여러분께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시겠으나 本人 또한 40년의 위장병을 단 한 번의 체질침으로 허물어뜨렸다는 불가사의의 실상 앞에 강한 의문과 탄성을 올렸던 것입니다. 「40년의 고질이 단 한 방의 침으로 치유됐다! 우연일까? 神通力인가?」 과학적 思惟만으로 풀릴 수 없는 회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병을 털어냈다」는 엄연한 사실 자체였으며, 피골이 상접했던 한 과학자는 마침내 젊은 시절의 그 흥조를 되찾았고 왕성한 연구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대의학자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本人은 수많은 古典을 정독하고 고명한 한약인의 저문과 격려속에 실험실습을 거듭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밤을 낮 삼았던 노력의 결과는 이 과학도의 머리속에서 韓方에 대한 뿌리 깊은 회의를 몰아냈으며 자연계의 내면세계에 등돌리고 物理構造의 규명에 만 몰두했던 형이하학적 편견의 틀을 털어낸 자리에 四象醫哲學을 정중히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목표는 명확한 체질감별법의 창안이었으며, 4개의 象으로 분류된 각 체질의 陰 陽의 機能을 相乘, 八象으로 분류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八象에 和應하는 음식과 약물을 분류, 체계화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八象體質醫學을 거듭 발전시킨다면, 사람의 수명은 120세에 이를 수 있다는 신기원의 가능 논리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이 八象體質論은 사람만이 아닌 토끼와 말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등을 통하여 本科學者가 내린 結論은, 科學은 科學이 아니며 非科學이 결코 非科學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갖은 제도적 천대와 불이익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전통의학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학술 연마에 전념하시는 전통 한약인 여러분의 八象醫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 노력이 本人의 불같은 信念과 함께 용해될 때 우리들은 반드시 人類醫學으로의 신기원을 개척해 낼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1994 8 30 한약協報에서>

(서울 대림의원장, 자연건강회장)